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男‘성소수자 인권’이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이끌어

2013년 에이즈 감염 경로, 100% 남성 성 접촉

“에이즈의 주감염 원인인 동성애는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성중독이며,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로 보호하며 이들의 인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들을 위한 방법이 아니다.”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은 최근 주간 미래한국 인터넷사이트의 기고문을 통해 에이즈 감염의 진원지는 남성 간의 성관계에서 비롯되며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인권으로 인정할 경우, 동성애자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성관계를 도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염 원장은 동성애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은 90% 이상이며 ‘에이즈 바이러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뇌세포를 갉아먹는 것’이라며 이것은 반신불수, 전신 마비, 식물인간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박재형 가천대 길병원 교수도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남성 이성애자에 비해 약 750배 높다.”며 에이즈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남성 간의 성관계를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2013년 신고된 에이즈 신규 발생신고 건수는 1114

명으로 그중 남자가 1016명, 여자가 98명으로 10.4:1로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았으며 감염 경로에 대해 확인된 것은 100% 성 접촉이었다.

염 원장은 미국에서 동물과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수간금지법이 제정된 경위를 예로 들면서 “2005년 동성애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수간동성애자로 발전해 결국 사망한 케네스 피니언의 사건을 계기로 수간금지법이 만들어졌다.”며 “동성애자들이 수간을 통한 죽음을 목격하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성중독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GNPNEWS]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로마서 1:27)

기도 | 주님, 동성애를 죄가 아닌 자신의 성적취향으로, 소수의 인권보호라고 하는 사탄의 속임을 파합니다. 자신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 고통하고 있는 이들에게 죄인을 사랑하셔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초대하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십자가에서 바꾸신 내 이름



제공: WMM

- 파키스탄

한 여인이 무언가를 잔뜩 쌓아 올린 무거운 대야를 이고 들판을 걸어간다. 들은 황량해서 나무뿌리가 흰하고, 여기저기 흙이 패였다. 해는 누엿누엿 지는데,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이 무거워 걸음이 자꾸 놀린다. 이것은 바로 냄새나는 소풍! 시골길 한 복판에 한 덩이씩 퍼져있으면 조심스레 피해 가는 그 똥이다. 그러나 이 소풍은 파키스탄 서민들

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연료이자 건축 재료다.

더러운 똥보다 더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도 없이 나의 모습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천 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만 하나님

의 능력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사 자녀 삼으시고 함께 당신의 영광에 동참하자 하신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현장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17)

[GNPNEWS]

다음호는 8월 6일자로 발행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39)

무거운 인생의 짐이 당신을 얹매고 있습니까?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사람들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힘들어 그 짐을 벗고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재벌도, 인기 연예인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그 어떤 사람도 자살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얹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

자만의 음란, 거짓, 탐욕, 분노, 위선. 얹매인 죄는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누구에게 자기 죄상을 밝히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숨기고 포장하고, 얹매인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얹매인 데서 해방되고 싶어 착한 일도 해보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변명도 하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 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의 짐을 대신 져 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얹매인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줄 수 있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대신 그 짐을 져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얹매인 죄에서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자기 죄도 어찌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타인의 죄를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고 이미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을 쉬게 해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무거운 짐과 얹매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으셨습니



일러스트= 김경선

다. 죽음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십시오. 무거운 짐을 벗고 얹매인 죄에서 해방되어 천국을 살게 됩니다.

[GNPNEWS]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INSIDE

02 뉴스 | 한국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을 주께로

03 기획 |
버려진 ‘불가촉천민’ 등 파키스탄 기독교인들…“고단한 삶”

05 인터뷰 | 이영미 집사
“끝없는 ‘내 열심’이 끝나고 ‘믿음’이 시작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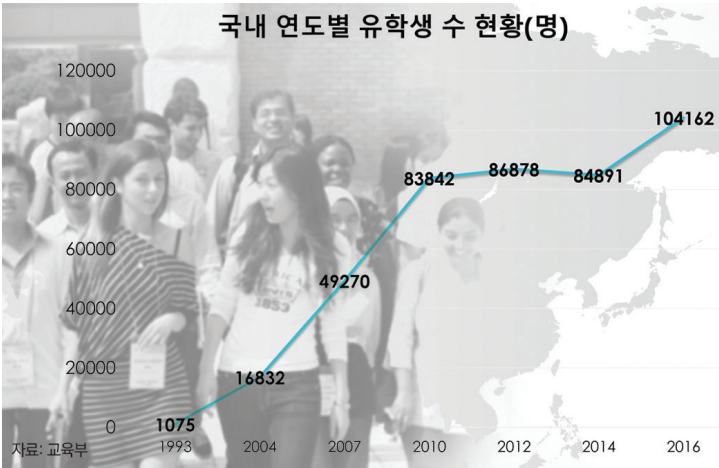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축복

08 뷰즈 인 시네마 | 저스트 렛고
만취 운전자에 의해 가족을 잃은 한 목회자의 선택

한국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을 주께로

2020년대 전 세계 유학생 580만 명 예측



2020년대 전 세계 유학생 수가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시대적 사명을 맞게 되었다고 웹진 ‘중국을 주께로’(이하 중주)가 7월호를 통해 밝혔다.

중주는 ‘글로벌인재의 국제이동’이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세계의 유학생은 1975년 60만 명에서

2015년 270만 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은 2016년 현재 4년제 대학 등 432개의 고등교육기관에 234개국에서 온 10만 426명이 있다. 학위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으로는 중국인이 61.7%(3만 8958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유학생이 3466명(5.5%), 몽골 2279명(3.6%), 미국 1591명(2.5%), 일본 1568명(2.5%) 등으로 이어진다.

한국교회나 선교단체들은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에 집중했던 외국인선교에 ‘외국인유학생선교’라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또 교수, 선교사, 캠퍼스 사역자, 어학당 강사, 국내 외선교단체들이 캠퍼스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중주는 그러나 이단들도 끊임없이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어, 이들을 이단의 활동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 각국에서 유학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중 미국으로 가는 외국 학생의 비중은 33%로 일정하며 한국을 비롯 일본 러시아 등의 국가로 가는 유학생은 3% 미만으로 조사됐다. [GNPNEWS]

중동

이라크, 중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 건물 세워져

이라크 쿠르디스탄 아인카와 지역에 중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 중 하나가 세워졌다고 쿠르드계 아랍 언론 루다우(Rudaw)가 최근 보도했다.

쿠르디스탄 종교당국 칼리드 자말 국장은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기도할 수 있는 강당만 완성된 상태이지만 공사가 마무리되면 한 번에 1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회는 앞으로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를 피해 고향

을 떠난온 이라크, 시리아 출신의 난민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시리아 출신의 여성 미리암 실레만은 인터뷰를 통해 “난 시리아에서 와서 이곳에 살고 있는데, 이 교회가 생겨서 너무 기쁘고, 항상 이 교회에서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샤르 마티 주교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쿠르디스탄을 평화의 장소로 여기고 있다. 쿠르디스탄 정부의 도움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기독교인과 쿠르드인들 간의 연결고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이다. 이는 또 기독교인들에



▶ 8년만에 지어진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 성도들(출처: rudaw 영상 캡처)

대한 지지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현재 쿠르디스탄에는 2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28%이다. [GNPNEWS]

한국

신앙상담 ‘316전화’ 등장…1670-3160

복음의 증인들이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상담’

기독교 신앙이나 복음을 누리는 삶에 대한 의문을 상담할 수 있는 전도용 상담 전화 복음의 소리 ‘316전화’가 개설됐다.

본지를 발행하는 복음과기도미디어는 전도용 상담 전화(1670-3160)를 개설, 6월 하순부터 본격 상담사역을 시작했다. 이 상담 전화는 복음과기도미디어에서 발행하는 ‘복음기도신문’이나 전도용 도서 ‘내가 급하다 뜯어주는 전도편지100(저자 김정화)’(7월 발간 예정)을 읽고 믿음의 삶에 대해 도

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316전화’는 복음의 핵심구절인 요한복음 3장16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상담서비스는 처음부터 선명하게 복음을 나누고 전하겠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전화 상담 신청자가 일차적으로 신앙을 갖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담 신청자가 신앙을 갖기로 결단한 경우 지역교회를 연계하여 지속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믿음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된 상담 섬김이들이 불신자나 신앙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의 전화에 응대하고 있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상담 전화 ☎ 1670-3160

문의 ☎ 070-7417-0408~10, 이메일 gnmedia@gnmedia.org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7.3~7.9)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스리랑카, 최악의 Dengue 발병으로 225명 사망·7만6천 명 발병

스리랑카에 모기가 전파하는 바이러스로 발병하는 Dengue가 크게 유행해 올 들어 지금까지 225명이 숨지고 7만6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고 4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하나님, 홍수 이후 또 발생한 어려움 앞에 고통을 초월하는 영원한 기쁜 소식을 들려주소서. 영혼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그 날을 꿈꾸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소서.

고독한 유럽인…도움 요청할 사람 없는 ‘나홀로족’ 6%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 100명 중 6명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나홀로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현지시간) 유로스타트(Eurostat)를 인용해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28개 회원국 가운데 ‘나홀로족’이 가장 많은 나라 1, 2위는 이탈리아와 룩셈부르크였다.

주님,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외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되었음을 깨닫는 복음을 들려주소서. 유럽의 교회를 깨우시고 복음에 전부를 건 증인들로 일으켜 주시길 강청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안락사법’ 도입 후 111명 죽음 택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지난해 6월 시한부 말기 환자의 ‘죽을권리법(안락사법)’을 발효한 후 12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258명이 이 절차를 개시했고, 111명이 죽음을 택했다고 28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주여! 불법을 합법화한 후 증가하는 악을 보시옵소서. 생명의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주소서.

75mm 비에 잠긴 멕시코시티…도로 마비·전철역 폐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가 기습 폭우와 강한 바람 탓에 한때 도시 기능이 마비됐다고 엘 유니베르살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누적 강수량은 75mm로 기상관측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양이었다.

불법이 만연한 멕시코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죄로 인해 세상이 멸망을 당했던 노아 시대를 기억합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악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7년 7월 3주~8월 1주

7월 3주(7.17~7.22)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강**)010-7364-9982

7.17~18,20~21(매일 10~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7.17~21(07~23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7.17~21(14~19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7.20~21(06~18시)

▶전북 전주 / 사론교회 (진**)010-2638-1440

7.21(08~20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7.21(22시)~22(22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7월 4주(7.24~7.29)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 (최**)010-4202-0079

7.24~25,27~28(매일 10~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7.24~28(14~19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10-432-1590

7.28(08~20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7.28(22시)~29(22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8월 1주(7.31~8.5)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강**)010-7364-9982

7.31~8.1,3~4(매일 10~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7.31~8.4(14~19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8.1~4(06~12시)

▶전북 전주 / 시향교회 (정**)010-8295-6889

8.4(08~20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8.4(22시)~8.5(22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8.5(06~18시)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 (강**)010-5408-6348

*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버려진 ‘불가촉천민’등 파키스탄 기독교인들…“고단한 삶”



▶ 이르판 마시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출처: BBC NEWS 캡처)

핍박받는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종교자유기도뉴스(RLPB)는 최근 박해받는 파키스탄 기독교인의 삶을 조명하며 기도를 요청했다.

많은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 카스트 제도 아래 사회적 계급이 매우 낮은 ‘불가촉천민’ 혹은 ‘추흐라’에 속한다. 불가촉천민 계급에 속하는 기독교인들은 길거리나 화장실을 청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실제로 거의 모든 파키스탄 도로 청소부와 화장실 청소자는 파키스탄의 2.3%에 불과한 기독교인이다. 하수구가 막히면 시 당국은 배관공과 비싼 기계를 운용하기보다 ‘불가촉천민’을 부른다. 그들은 직접 하수구에 들어가 맨손으로 막힌 곳을 뚫어낸다. 살인적인 독성 가스가 뿜어져 나오지만 그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

게 기독교인들은 가치 없으며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으로 간주된다.

28세의 이르판 마시는 기독교인으로 신드 주 우메르콧 시의 청소부로 근무했다. 지난 6월 1일, 그의 동료 야콥이 하수구에서 작업하던 중 맹독성 가스 때문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르판은 그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지만 야콥을 밟 줄로 올리는 중에 이르판도 의식을 잃어 구출에 실패했다. 또 다른 동료 사우캇도 도움을 주려고 했으나 그도 역시 의식을 잃었다. 그때 다른 동료들이 그들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무슬림 의사 치료 거부로 ‘기독교인 사망’

가족들은 의식 불명으로 사경에 빠진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병

원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세 명의 의사들은 신체적, 종교 의례적으로 모두 ‘부정한’ 천민의 치료를 거부했다. 가족들이 그들을 물로 씻기고 네 번째 의사를 찾았을 때, 이르판은 너무 늦은 상태였다. 다른 두 명의 동료도 다른 병원을 찾는 동안 이르판은 사망선고를 받았다. 이르판의 어머니, 아르사드 비기는 BBC 방송에서 아들을 잃은 슬픔을 전했다.

이런 사고가 파키스탄에서 처음은 아니다. 특히 불가촉천민인 기독교인들은 파키스탄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 물론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상, 파키스탄 기독교인을 박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신분’은 없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으로 지난 3년 반 동안 시행했던 ‘와하비즘’의 결과와 지역 테러에 대한 후원은 파키스탄의 편협함과 불안정을 갈수록 악화시켰다. 와하비즘은 엄격한 율법을 강조하는 이슬람 원리주의다.

오늘날 파키스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에 있다. 그들은 정부가 이슬람에 대해 무력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를 요구하며, 정부는 그 어느 것도 변경할 수 없다. 개

태국으로 망명하는 파키스탄 기독교인들 ‘또 다른 고향’

2016년 2월, 영국 의회에 따르면 1만1500명의 파키스탄 사람들이 태국에 망명을 신청했다. 그들 중 대다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상황에 갇혀, 상상을 초월한 투쟁을 하고 있다. 그들의 투쟁은 망명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박해받는 기독교인은 망명 과정에서 통역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대다수가 무슬림 통역관이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의 망명을 방해하고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 파키스탄 기독교 난민을 방문하기 위해 ICV 팀원들이 음식을 준비한 모습(출처: International Christian Voice)

파키스탄 기독교인 이자즈(35)는 2013년 파키스탄을 떠났다. 그는 아내와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종교 박해를 이유로 태국에 망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박해감시단체 월드워치모니터(World Watch Monitor)의 보도에 따르면 이자즈는 태국에서 치료를 거부당해 2017년 5월 26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국제기독교인권단체 ICV(International Christian Voice) 대표 피터 바피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태국 정부와 UN난민기구(UNHCR)를 비난했다.

지금 열방에서 누가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신다는 것과 적어도 지금의 ‘세상’은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지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님의 병기’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을 본받아 그들을 섬겨야 할 것이다. [GNPNEWS]

혁을 추구하는 사람은 암살당한다. 재물을 가진 기독교인 중 도망치는 숫자는 늘고 있다. 애석하게도 많

은 이들이 갈망하는 자유와 안전의 삶은 절대 찾을 수 없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미국 청소년의 우울증…2차 세계대전 때보다 심각

미국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대공황이나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미국 브레이크포인트가 최근 전했다.

영국의 정신의학자가 최근 미국 여학생들 중 36% 이상이 우울한 상태에 있으며 남학생들은 이보다 조금 낮은 3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내셔널리뷰의 컬럼니스트 모나 케런은 청소년들의 이같은 수치가 이전 시대를 비롯 격변의 70년대 같은 세대가 겪은 우울증과 불안증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음세대의 정신건강은 대학 캠퍼스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오하이오 주에서는 지난 5년간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상담요청이 43%가량 증가했다. 케런은 젊은이들의 행복감과 안녕이 무엇인가에 의해 빼앗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히 무엇이 젊은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일까? 케런은 몇 가지 요인을 제시한다.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진적인 변화, 즉 이혼이나 한 부모에 의한 양육을 그 요인 중 하나로 꼽는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보다 깊은 데에 있다. 바로 영적인 근시다.

영적 근시가 우울증의 원인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크리스천 스미스와 맬린다 런퀴스트 텐튼 교수는 미국 기독교 청소년들의 기독교 신앙이 붕괴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하나님은 ‘도덕적 치료주의의 하나님’으로 여겨질 뿐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란 선함, 행복감, 안정감과 평화를 ‘감정적’으로 느끼게 해주거나, 주관적인 삶의 안녕이나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신, 혹은 다른 이들과 평화롭게 잘 어울리게 해주는 신이라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확실히 현대의 상대주의나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들의 신앙은 거룩한 하나님, 타락한 인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한 구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죄의 고백과 같은 성격적 신앙의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이같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신론적 ‘도덕적 치료주의’는 좋은 것을 느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들이 ‘왜 우울과 불안증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라는 점이다.

이는 기독교가 청소년들에게 거룩해지라고 독려하기보다 오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닌, 파티에 초대하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의 말씀만이 이들에게 복음인 것이다.

성 어거스틴은 “주여, 주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



▶ 출처: Religion News Service 캡처

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렇듯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도 그들의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는 자기 자신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의미를 지닌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행복’은 단순한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C.S 루이스는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종교인이 되지 않았다. 행복의 비결은 포트와인 한 병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며, 행복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앞으로 나아오게 하

시기 위해 ‘기쁨’을 사용하신다고 역설했다. 또한 루이스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하지만 또한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는 술과 성(性)과 야망으로 무한한 기쁨이 제공될 것이라고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에 너무 쉽게 의존하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거룩한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나눌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음세대 청소년들이 종교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임을 가르쳐야 한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기획 | 조선선교열전 (4) - 전라북도 편

벽안(碧眼)의 호남 7인 선교사, 전주를 선교기지로 세우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32주년을 맞고 있다. 구한말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선교 역사는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나라 곳곳의 선교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호남 7인의 선발대

1891년 9월 안식년을 맞은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 각지를 돌며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테네시 주 내슈빌에서 열린 미국신학교해외선교연합회 집회에서 그의 강연을 들은 테이트(Lewis Boyd Tate), 레이놀즈(William Davis Reynolds), 전킨(William McCleary Junkin) 등이 한국 선교를 결심했다. 이들은 미국 남장로교 해외선교부에 한국선교사로 파송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시 남장로교는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여기에 재정적인 문제로 이들의 청원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좌절하지 않고 매일 만나 기도로 선교를 준비했다. 그리고 1892년 ‘더 미셔널리’라는 선교잡지에 ‘왜 우리는 한국에 가기를 원하는가?’라는 글을 실어 한국 선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북장로교 선교위원

이자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 존 언더우드가 2천 달러의 선교기금을 남장로교에 기부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도 500달러의 헌금을 기부함으로써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미국 남장로교는 테이트, 레이놀즈, 전킨 등 3명의 남자 선교사와 메티(Mattie S. Tate, 테이트의 누이동생), 팻시 볼링(Patsy B. Reynolds, 레이놀즈의 아내), 메리 레이번(Mary L. Junkin, 전킨의 아내), 리니 데이비스(Linnie F. Davis) 등 4명의 여자 선교사를 첫 한국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중 데이비스 선교사는 1892년 10월 17일에, 나머지 6명은 11월 3일에 제물포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이들 7명의 선교사는 남장로교 한국 선교의 문을 연 ‘7인의 선발대’로 불리게 되었다.

호남 7인의 선발대가 도착할 당시 조선에는 25~30명의 선교사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미국 북장로회, 감리교 등 파송 교단에 따라 서로 충돌과 경쟁을 피해 선교구역을 나누었다. 서울, 부산, 원산 등에 선교기지가 있었지만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직접적인 선교활동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7인의 선교사들이 사역하기로 한 전라도 지역은 기독교와 전혀 접촉이 없었다. 전라도는 1860년대 로마 가톨릭 수난이 있기 전까지는 가톨릭이 번성하던 곳이었지만, 수난



▶ 1892년 한국에 도착한 7인의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들과 그들의 통역을 맡았던 장인택 조사의 모습. 맨 왼쪽 첫 번째부터 메리 레이번, 리니 데이비스, 두번째 줄 왼쪽부터 장인택, 테이트, 전킨, 레이놀즈 부인, 레이놀즈, 메티 테이트(출처: 도서 한국선교 이야기 표지)

후 가톨릭의 흔적도 희미해졌다.

그들은 우선 서울에 자리 잡고 있던 북장로교 선교사들과 함께 서대문에서 생활하면서 공식적인 선교 조직을 시작하고 조선말을 배웠다. 일 년쯤 뒤에는 짧은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조선말을 익혔다. 얼마 후 그들은 공주와 전주 등 전라도 순회를 시작했다. 그리고 1893년 초,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선말 선생이자 조사(助事)인 정해원을 전주로 보내 탐방하고, 전주 성문 밖 은송리(현재 완산동 백운정 자리) 초가집을 미화 26달러에 매입해 선교기지를 마련했다. 전주는 유교의 뿌리가 깊은 곳이었기에 사

람들은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더욱이 전주성 안은 신분이 높은 양반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배타심이 있었다. 그러나 은송리는 성 안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소외계층들이 모여 사는 보잘 것 없는 마을이었다. 정해원은 감격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 한다.

전주에 선교기지 마련

1894년 2월, 선교회 연례회는 테이트 목사와 여동생 메티 테이트를 먼저 전주에 보내고, 일이 잘되

면 가을에 상설 선교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인들은 돌을 던지기도 했지만, 푸른 눈의 이들을 보기 위해 몰려들기도 했다. 이미 서울 저잣거리를 오가며 조선인과 친숙하게 접촉했던 이 선교사들은 서툰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전주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말을 하는 것을 보려고 자주 놀러왔다. 메티 선교사가 기거하던 방에 있던 다섯 개의 창호지 문은 밤이고 낮이고 들여다보는 사람들로 수없이 구멍이 뚫렸다. 그녀는 광장 거리에 나가지 않고도, 찾아온 여자들에게 유인물을 전해줄 수 있었다. 그 결과 이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후에 서문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처음부터 5~8명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이들 중 6명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믿었다. 그들은 세례를 받기 원했지만, 테이트 목사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해 돌아오는 여행에서 성례전을 베풀려고 했다. 하지만 그 소망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그들은 6주 만에 전주를 떠나야 했다. <계속>

[GNPNEWS]

참고문헌: <전북선교 120주년과 예수병원설립 115주년 기념 포럼>(2013) <한국선교이야기, 조지 톰슨 브라운 지음, 도서출판 동연>(2010)



선교 통신

“어둠 속에 비추어지는 한 줄기의 빛”

오픈도어선교회가 소개한 이라크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소개한다. <편집자>

이집트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현지 여성 마르타는 만후라 지역 길거리에서 노년의 기독교 여성이 무슬림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폭행과 굴욕을 당했다는 뉴스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기독교인인 노파의 아들이 이슬람 규율을 어기고 무슬림 여성과 사랑에 빠져 도망쳤다는 이유로 마을의 엄격한 무슬림들이 극도로 분노했다. 그들

은 이 남성을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자 모든 분노를 그의 어머니에게 쏟아버렸다.

마르타는 만후라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듣기 위해 그 마을의 촌장을 찾아갔다. 촌장은 마르타와 몇 차례의 이야기를 나눈 후, 그녀에게 만후라 지역 여성들에게 건강에 관련한 교육을 해 줄 수 있겠냐는 제안을 했다. 그녀는 이 일을 섬기기로 마음 먹었다.

차를 타고 처음으로 마을 안에 진입했을 때 그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곳은 옆 마을이 아닌 마치 타국 아프가니스탄을 방불케 했다. 거의 모든 남성들은 긴 수염의 무슬림 전통의 긴 복장인 흰색 잘라비아스를 입고 있었으며 여성들은 무슬림 전통의상인 부르카를 두르고 어린 여자아이들도 검은색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옆 마을에서 온 그녀는 자신이 전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만후라 지역의 생활 수준은 몹시 가난했고 대부분의 집이 모르타르 벽돌로 지어져 있었다. 남성들은 논밭에서 일하지만 따로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 일당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문맹이었으며 학교에 가지 않았다. 비록 몇몇의 교인들이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교회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런 곳에 무슬림 여성의 건강을 교육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 여성이 처음으로 방문한 것이었다. 여성들은 이 일에 거의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집 안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밖으로 나와 수업을 듣는 것은 이들에게 힘든 일이었다. 그들은 자녀와 남편을 돌보아야 했고 집에서 외출하는 것이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마르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해 사람들을 만났다. 그것은 확실히 효과가



▶ 만후라 지역의 여성들(출처: 오픈도어선교회)

있었다. 그 후 다시 수업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업내용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의 눈빛에서 기독교인인 자신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었다. 마르타는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가족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는지 등을 교육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기른 경험담을 통해 본인이 했던 실수들을 본보기로 들며 어떻게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현명한지도 이야기했다.

만후라 지역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젊은 여성들이었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하는지 몰랐다. 한 여성은 자신이 아들을 부르

는데 아들이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서 벽돌을 집어 던져 아이 머리에 15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혔다고 했다.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던진 것이라고 했다. 그 외에도 남편에게 폭행당한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계속되는 폭행사례들을 들으며 마르타는 얼마나 많은 폭행들이 이 만후라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마르타는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만후라 지역 사람들에게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통한 한 줄기 빛을 전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만후라 지역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며 사람들을 돕고 있다. [GNPNEWS]



▶ 만후라 지역 아이들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해주는 모습(출처: 오픈도어선교회)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끝없는 ‘내 열심’이 끝나고 ‘믿음’이 시작됐어요”

복음은 생명을 변화시킨다. 한평생 열심히 살며 조건과 상황의 변화만을 위해 기도해 온 이영미 집사. 그러나 인생의 절망과 영혼의 목마름 끝에서 만난 복음을 통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게 된 삶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

- 복음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한 마디로 ‘열심’으로 살아온 삶이었어요. 40여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이 특성이었던 어머니와 함께 어릴 때부터 철야기도에 다녔고, 매사에 열심과 성실로 일했죠. 그러나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면서 한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의 사업실패 이후 제가 가정을 책임지려고 돈을 벌기 위해 여러 가지 장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던 나의 최선도 바닥이 나고, 결국 결혼 14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며 원망하고 교회도 나가지 않았어요.”

-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친연니가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한 분을 소개했어요. 지금의 남편이예요. 그 사람도 이혼 경험이 있었는데, 자신이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댁식구는 물론 남편이 예전부터 살던 집이어서 이웃들의 수군거림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시 주님께 매달렸죠.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오해는 바로 풀렸어요. 아이가 아빠를 너무 빼닮았던 거죠. 어쨌든 그 사이에 저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고난의 순간, 다시 믿음 생활 시작

- 다시 주님을 찾게 됐군요.

“또다시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덧 부족함 없이 살게 되고 이만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당시 저는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책 읽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사례비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장소로 쫓겨난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이제는 돈을 벌지 말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예수를 바로 믿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 되자 마



복음의 생명을 누리는 이영미 집사(성북장로교회)

음에 갈급함은 더해갔죠.”

- 마음이 무척 가난해지셨겠네요.

“그런 저를 안타깝게 보던 한 지인이 기도모임을 소개해줬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말씀기도모임이었어요. 그리고 총체적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 훈련을 통해 내가 어떤 죄인인지 충격적으로 깨닫게 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제 삶에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과정을 거쳐야 했죠.”

- 믿음이 실제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과정인가 봐요.

“복음을 알고 난 이후, 선교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어렵게 훈련을 마치고 한 2년간은 집에만 있기로 남편과 약속하고 실제로 그런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홀로 있으니 기도도 할 수 없더군요.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도를 배우고 싶어 어렵게 남편의 동의를 구했는데 놀랍게도 허락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님은 저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해주셨어요.”

- 어떤 자신의 모습이었나요?

“참 놀랍죠. 막상 갈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니까, 기도훈련을 받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

는 거예요. ‘지금은 남편이 허락했지만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저의 두 마음을 보게 됐죠. 내 마음이 어디까지 부패했고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직면하는 시간이었죠. 다시 마음을 잡고 기도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됐어요. 이후에 또 다른 선교단체를 통해 ‘복음과 가정’이라는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복음스터디’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 더욱 제 존재를 직면하고 몸부림치는 시간이었어요.”

- ‘복음스터디’는 어떤 은혜의 시간이었나요?

“복음의 진리 앞에 더욱 심도 있게 부딪히며 복음이 삶에서 실체가 되도록 돕는 훈련이었어요. 그동안 내 열심으로 달려온 것, 나의 최선, 주님을 앞서갔던 나의 지난 삶을 보게 되었죠. ‘나, 정말 죽은 것 맞아? 십자가에 죽은 것 맞아?’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이 되고 괴로웠어요. 어떻게 해도 믿음이 아닌 내 열심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의 고백을 듣게 되



▶ 생명의 변화를 처음 누리게 되던 날 찍게 된 가족사진

었어요. ‘십자가를 내가 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정말로 공감 이 되더군요. 그렇지. 십자가는 내가 진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나 역시 거기서 죽었음을 믿는 것이지!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복음 앞에 서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며, 훈련을 받으며 치열했던 순간들이 당시에는 죽음의 시간을 보내는 것만 같았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죽음에 내가 믿음으로 연합하며 그 죽음이 제게 실제 되게 하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지인의 한마디, 내 삶을 돌아보게 돼

- 지난 시간을 다시 믿음으로 보게 되셨군요.

“처음부터 되짚어 보니, 나로서는 걸을 수 없는 길을 걸어왔더군요. 주님이 하게 하셨다는 고백밖에 할 수 없었죠. 비로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면 그냥 먼저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해주시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예요.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젠 제 힘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주님이 말씀해주시고 나를 기도하게 하실 것을 믿게 되었어요. 이전엔 훈련과 기도모임에 못 가게 할까 봐 남편에게 거짓말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때가 될 때 남편에게 말하게 하셨어요.”

- 놀라운 변화네요.

“지금까지 ‘주님, 아버지, 아시잖아요. 저 이영미예요!’ 이렇게 소리치며 부르짖었지만, 그건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저 주님의 이름을 내 소원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요술 램프의 지니’ 정도로만 여긴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착각했는지 하나씩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뤄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정말 제 마음의 기쁨이 되었어요. 자녀가 유명한 금융회사에 취직해서 인정받게 되었는데도 기쁘지 않았어요. 평생 그게 기도제목이었는데 말이죠. 오히려 질문이 생겼어요. 난 뭘 구하

고 살아왔나. 정말 큰 기쁨은 날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와주셨다는 것인데...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게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면 나 역시도, 다른 것 아닌 그냥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지. 내게 기쁨이 된 이 사실이 가족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 복음을 정말 누리게 되셨군요.

“기도의 삶에도 놀라운 돌파가 있었어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를 허락해주신 거예요. 제 생명이 바뀌니까 열방을 위해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하는 기도24365 기도가 제 생명처럼 소중하게 되고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한동안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예전에 구했던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열방 안에 내 가족도 있으니까라면서 열방을 위해서만 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정을 위해서도 담대하게 구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제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따끈따끈 해요(웃음).”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에 바뀐 기도

- 무엇보다도 기도가 바뀐 게 주님이 가장 크게 하신 일이네요?

“그렇죠. 제 믿음이 견고해지고, 빨리 열매를 맺길 바라는 것도 모두 욕심이 있었어요. 또 신앙문제로 가정에 어려움이 없고 모두가 주님을 잘 믿게 해달라는 것도 제 조급함이라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어릴 때 오직 공부해서 성공하라고 가르쳤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붙잡으라고 해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제가 그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아이들에게도 필요할 거예요. 이제는 알아요. 제가 주위 사람들을 참 힘들게 했다는 것예요. 제 한 생명이 바뀌고 마음이 변하여 주님께로 가보니 제가 이전에 죄에 퍼질러 앉아서 냈던 열심들이 오히려 저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복음의 은혜가 죄인인 저를 덮어서 그렇지, 전 섬겨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성전에 충만한 영광의 복음 (2)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축복

건물로서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과 더불어 주님께 즐거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건물로서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여준다. 포로귀환 이후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건축했고 이후, 종교적인 목적으로 또다시 헤롯성전을 지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질책을 받았다. 주님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요 2:19)는 당시에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 십자가를 통해 너희의 심령을 성전 삼겠다는 뜻이다(고전 3:16). 심지어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과 그 어린양이 친히 성전 되시는(계 21:22)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 할렐루야!

인생이 맞이하는 가장 끔찍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지 않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것도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런 비참한 자였다. 성막에서 직업상 직무는 감당하는 혈통적 제사장이었지만 시대가 타락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도 경험하지 못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가장 무서운 저주다. 정통 모태신앙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의 불경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안 될 만큼 길이 참으셨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만 있던 그들은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전쟁이라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 부적처럼 사용했다. 결국 두 아들 모두 전쟁터에서 죽는다. 아버지 엘리는 법궤가 적에게 빼앗겼다는 말을 듣다가 목이 부러져 죽는다. 머느리 또한 해산 중에 '이가봇(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을 외치며 죽는다.

이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블레셋 군대 앞에서 다급해졌다. 종교적 위안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



일러스트=임이랑

다(삼상 28:6). 비참한 육신의 죽음이 있기 전에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저주 가운데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영적 기근의 고통

성경의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침묵을 고통스러워하는 증인들이 모습이 등장한다(시 22). 성경은 농경시대에 기근보다 더 끔찍한 일은 말씀을 얻지 못하는 영적기근

이라고 말한다(암 8:11~12). 심지어는 들려줘도 들을 수 없는 때가 도래할 것이다. 마치 주님이 가롯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귀빈에게 대접하듯 대접하시고 떡을 주기도 하셨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은 것처럼.

영적 문둥병으로 모든 영적 신경이 죽어버리는 이런 일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찾아온다. 육체에 나를 조금씩 내어주기 시작하면 점점 완고해져서 끝끝내 돌이키지 못하게 된다. 심

지어 기적과 같은 분명한 증거를 보아도 돌이키지 않는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함께 등장하는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을 경고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경고를 못 받으면 죽은 자가 부활해서 전한다 해도 들을 수 없다고 아브라함은 말한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것으로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주님의 분명한 경고다. 물론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연 축복 중의 축복이다.(2016. 6 매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LOG미션 대표)

복음기도총서1

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내가 굶다
뜯어주는
전도편지
100

예수가 필요한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나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걸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다!
뜯어라! 전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어디서든 전도를 멈추지 말라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7월 중 발간 예정

별책부록의 전도편지를 한 장씩 뜯어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값: 19,000원
(별책부록 포함)

구입문의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주님만 구하게 하심이 은혜예요”

“매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를 드린다고 하는데, 돌아보면 교만하고 존재적인 죄인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저의 섬김이었거든요.”

- 그렇죠. 우리 모두 주님 은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런 나를 보며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주님이 주신 결론은 ‘은혜 입은 자’라는 거였어요. 이제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자. 넘어져서 땅바닥을 기고 있어도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은혜 입은 자임을 믿어요. 이제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고,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죄가 곧 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새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터뷰 요청에도 수락할 수 있었어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미 준비하셨고 허락하신 건데 제가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삶을 허락해주셨어요.”

- 감사합니다. 앞으로 바라는

꿈이 있으신지요?

“제가 바라는 것은 매 순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를 택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고 십자가 죽음에 믿음으로 화합케 하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변함없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기대하게 하신 그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길 기도하게 돼요. 더욱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믿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 구하게 돼요. 내 삶이 주님으로만 증거가 되기 원해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없어요. 그것만 남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GNPNEWS]

L.S.





“나와 같은 원수에게 허락된 기도의 자리는 주님의 섭리”

리틀 보이(Little Boy).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이름이다. 또한 군대 있을 때 우리 팀의 이름이기도 했다. 작지만 살상력이 어마어마한 이 폭탄처럼 비록 소수일지라도 적진에 들어가 놀라운 승리를 얻겠다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었다.

기도가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되었다. 신앙훈련 과정 중 참여하게 된 느헤미야52기도. 52일간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보수했던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5박 6일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기도하면 선교 완성이 된다?'라는 의구심에서 '기도하면 선교가 완성된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전에도 믿음으로 구하고 통치해 주실 것을 믿고 구했다. 그런데 더욱 간절해졌다. 더욱 소망이 되었다.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일 것이다. 얼마나 이 기도를 듣고 싶으셨으면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을까.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에게 너무 감격스러워 이렇게 나왔다. “지금 이 자리가 너무 기적과

같다.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부르짖고 있다니, 이것 자체가 주의 놀라운 섭리 아닌가!”

연합기도로 회복될 열방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영이 임하신다는 말이 단순히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연합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다. 선교완성은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가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예수님이라는 한 켠대를 향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면 열방이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쉬지 않는 기도,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로 애통함과 기쁨을 동시에 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셨다. 기도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돌아보니 마치 나의 인생과도 같았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금방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뭔가 아쉽고 부족한 삶이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내 삶에 예



일러스트=박남희

수 그리스도가 남아서 너무 기뻐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다. ‘나를 남기며 살아라, 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살 아라.’

부르심의 응답은 당연한 결과

이 세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까지 주님을 부르는 것이다. 주님을 불러야 주님이 오시기에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계속 외치는 것이다. 애타는 자식의 부르짖음을 아버지는 못 본 체하

고 지나갈 수 없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방 곳곳에서 주님 오시라고 부르짖으면 주님 정말 오실 것 같다.

처음 복음 앞에 선 후,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잊지 못한다. 주저하고 고민만 하다 헛갈리고 넘어져 악도 써봤지만 주님은 내게 같이 가자고 손 내밀어 주셨다. 결국, 나는 주저 없이 아멘하게 되었다. 이것은 당연한 발걸음이지, 대단한 결단이라고 할 수 없다. 부르신 곳에서 평생 기도만 한다 하더라도,

한 영혼뿐이라 해도 주님의 허락 하심이면 족하다. 나의 기도의 미사일이 불발 같아 보여도 주님의 때에 놀랍게 터트려 주실 것이다.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해 주신 사랑으로 이제 받지만 앓고 흘려보 내려 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리틀 보이’가 일본 제국주의의 끝을 알렸던 것처럼, 세상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기도의 자리에서 깨트리겠다. 현상을 반역하는 기도로, 세상을 반역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주님만 찬양하는 삶으로, 주님의 사랑에 나를 드리는 삶으로, 그 사랑을 베풀러 나아간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신다. [GNPNEWS]

유선필 형제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기도 응답으로 허락된 지퍼 달린 성경책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눈 때문에 글씨가 번진 성경책

한겨울이었다. 뽕뽕 얼어있는 두만강에는 무릎까지 폭폭 빠질 만큼 많은 눈이 쌓여 있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성경책을 품속에 넣은 민국(가명)은 얼어붙은 강을 조심스럽게 건너가고 있었다. 그러나 저만치에서 그를 발견한 북한경비병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품속에 있던 성경책을 찢인 눈 속에 재빨리 던졌다. 경비병은 중국에서 넘어오던 그를 국경수비대로 끌고 가 철저히 몸수색을 했다.

많은 매를 맞고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던 민국은 자신이 눈 속에 던진 성경책이 생각나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가던 걸음을 돌려 자신이 성경책을 던졌던 지점을 조심스럽게 찾아갔다. 한동안 해맨 끝에 눈 속에 묻혀있던 성경책을 드디어 찾아냈다. 다행히 글씨가 조금 번졌을 뿐 멀쩡해 보였다.



▶ 북한 경계선의 겨울(출처: nk news 캡처)

민국은 성경에 묻어 있던 눈을 털어내어 품속에 넣고 다시 고향으로 길을 향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는 그 상태 그대로 국경수비대에 붙잡혔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발각됐다.

그가 끌려간 곳에서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된 사람들이 이미 매를 맞고 있었다. 그것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이것을 본 민국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순간, 그는 매를 맞다가 고통에 견디지 못하여 자기에게 성경책을 주었던 중국의 사역자들에 관해 말해버리게 될까봐 더욱 무서워졌다. 그래서 그는 심문을 받고 죽어 나

가는 사람들 때문에 경비병들이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그곳을 뛰쳐나왔다.

놀랍게도 그는 삼엄한 국경수비대의 손에서 벗어나 얼마 후 중국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퍼가 달린 성경책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성경을 전해 주는 사역자가 민국을 찾아왔다. 그는 민국에게 지퍼가 달린 성경책 한 권을 주었다.

“와야! 이거 지퍼 달린 성경책이네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

데...”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던 민국은 다시 말을 이었다.

“눈 속에 던진 성경책이 녹은 눈으로 인해 글씨가 번지는 것을 보면서 눈 속에 던져도 번지지 않도록 지퍼가 달린 성경을 북한으로 보낼 수 있기를 위해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가지고 오셨네요!”

성경책을 받아든 민국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나고 있었다.

[GNPNEWS]

〈출처: 붉은 예수쟁이(문광서원)〉



▶ 북한에서 온 성도들을 돌보고 훈련하는 일꾼들에게 건넨 지퍼성경(출처: missionews 캡처)



나의 주인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조지 베브리 쉐어. 미국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로, 인기 절정의 가수로 많은 돈을 벌었다. 그와 함께 늘어난 것은 허무함과 마음의 불안.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몰라.’ 은혜로 예수님께 자신의 전 삶을 드리기로 한 그에게 몇 배의 출연료를 제시하며 재계약하자는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답했다. “전화가 너무 늦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목소리와 재능,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는 바로 그가 지은 곡이다.

[GNPNEWS]



뷰즈인 시네마

Views in Cinema

저스트 렛 고 〈JUST LET GO〉

만취 운전자에 의해 가족을 잃은 한 목회자의 선택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던 평범한 어느 날. 갑자기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던 차에 부딪쳐 임신한 아내와 아들, 딸이 한순간에 죽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다른 한 아들은 치료와 재활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 고등학생인 가

해자는 미성년자 자격으로 감형을 받으려고만 하고 피해를 위한 아무런 보상도, 용서도 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용서할 수 있겠는가.

2007년 2월 9일, 미국의 크리스 윌리엄스 목사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영화로 제작되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절망에 부딪혔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막상 현실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과 갈등이 뒤섞인 고통이다. 무엇보다 큰 두려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분이 지금 왜 이 상황을 도우실 수 없는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을 직시한 절망

영화는 감옥에서부터 시작된다. 주인공이 가해자를 만나러 감옥으로 들어간다. 그동안 가해자를 마음에서, 꿈에서 작은 박스에 쥘

넣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정작 본인 자신도 함께 갇혀버린 마음의 감옥.

모두가 입을 모아 가해자를 최고 형에 처하고 철저히 대가를 치르게 하라고 말한다. 가족들조차 분노를 표출하고 보상을 요구하라고 강요한다. 이 가운데 주인공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없었다는 자책에 믿음도 힘도 기도도 잊어버린 공황상태에 빠진다.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자신을 직시해야 하는 절망.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끊임 없이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우리 마음의 신음과 고통을 잘 알고 계시며, 결코 외면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아래 이 세상은 단지 모형일 뿐이며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임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실제 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용서, 그리고 자유다.

지독한 갈등과 치열한 내면의 싸움에서 결국 주인공은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선처해 주기를 부탁한다. 그리고 이에 반발하며 괴로워하는 남은 자녀에게 자신이 어떤 용서와 은혜를 받은 자인지 고백하며 화해와 깊은 연합을 얻는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을 삶으로 전한 한 증인으로 말미암아 주인공은 결국 똑같은 은혜의 통로로 선다.

영원한 생명 가진 자에게 주시는 선물, 용서

소년원에 갇힌 가해자를 찾아가 이 용서가 자신이 아닌 주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전하며, 동일하게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기를 당부한다. 용서한 자와 용서받은 자의 굳게 맞잡은 손 안에 완전한 죽음과 부활로 이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확고한 승리가 드러난다. 영화의 마지막 장

면에서 주인공은 감옥의 긴 복도를 걸어 빛으로 나가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분이 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그 (자아의) 감옥을 탈출했다.”라고 고백한다.

영화를 보는 내내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 안에서 승리를 이루실 것을 믿는다. 언제나! 용서받은 것이 은혜라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역시 은혜요, 선물이다. 용서의 최대의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다.

영화 속의 사고처럼 큰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고전 1:30) [GNPNEWS]

이귀영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6개월 훈련 떠난 남편...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 “경험”

남편이 한 선교단체가 주관하는 6개월간의 공동체 훈련을 받기 위해 원서를 내고 합격 소식을 받던 날, 나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아이는 이제 갓 돌이 넘고 있었다.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이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부부에게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필요했다.

남편이 떠나기 전 서울에서 인천으로 거처를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기도하며 구했을 때 허락된 곳이었다. 그리고 주님은 한 교회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셨다. 남편은 떠나기 전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몇 안 되는 성도들에게 남은 우리 가정을 부탁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한 달은 힘들었다. 낯선 곳에서 적응하는 것과 입덧으로 인해 내내 속이 안 좋은 상태로 지내야 하는 어려움, 저녁이 되어도 하루를 돌아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이가 없는 적막함. 부부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간순간



일러스트= 이수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떠나면서 우리 가정을 맡겼던 교회를 통해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성도들은 수시로 먹을 것을 챙겨주었고, 아이를 함께 돌봐주었다. 교회에 오가는 가족, 동역자들과 교제도 할 수 있었으며 토요일엔 함께 기도를 하고 ‘복음기도신문’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혼자라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들이었는데 교회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방학을 맞은 다음세대 선교사들을 한 달 정도 섬길 기회가 주어졌다. 교회에는 자매들이 잘 수 있는

독립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남은 방 하나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렇게 함께 살게 되었다. 함께 먹는 밥이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연합과 섬김의 은혜 경험

이런 시간을 보내는 중에 네팔 아웃리치팀이 네팔로 떠나기 전 목을 굿이 필요했다.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우리 교회가 섬기기로 했다. 거기에 우리 가정도 참여해 집을 숙소로 제공했다. 팀에게 우리 집을 내주고 교회에서 교회 식구들끼리 좁지만 함께 잤다. 주님의 일에 이렇게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 감사했고, 이런 것이 내게 행복으로 다가왔다는 것도 감격이었다.

남편 없이 지내는 시간들이 막연하고 두려웠지만 뒤돌아보니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시간이었다. 교회에 신세만 지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괴로웠던 시간들도 있었다. 그때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였고, 조건 없이 섬겨주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 또한 교회로 쓰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가장 연약할 때 우리 가정을 돌봐주고 받아준 교회가 고맙다. 이런 시간을 보내며 교회도, 우리 가정도 예수 생명으로 더욱 서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6개월여의 공동체 훈련을 마치고 남편이 돌아왔다. 배 속에 있던 둘째 아이도 얼마 전에 건강하게 태어났다. 삶의 모습이 이전과는 좀 달라졌다. 남편이 첫째 아이를 거의 맡아서 돌보고, 나는 신생아를 돌보는 일에 집중해 집 밖에 나가는 일이 드물다. 이전처럼 교회와 함께 하진 않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워가고 계심을 믿는다. 주님의 선하신 뜻은 늘 놀랍고 위대하다. 앞으로도 그 주님만 기대하며 살아가길 소망한다. [GNPNEWS]

이전경 사모(주안교회)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7. 6. 22 ~ 7. 4 (가나다 순)

개인

김경선 김문화 김성훈 김애심 김유남 김혜신 박숙자 박승은 안수경 오경숙 유자인 이란영 이정숙 이지영 이현희 장근혜 장미자 정영숙 조경미 조명숙 조형광 무명

교회 및 단체

YAMS네네스쿨 김화제일교회 목자교회 산돌교회 새순교회 시은좌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열매교회 열방그루터기교회 은혜의샘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민족기도원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